

리얼리즘 사진 선구가 '임응식 사진전-부산에서 서울로' 11월 15일까지 갤러리 혜음



1953년 서울 미도파 미장원 앞에서 찍힌 한 남자의 흑백 사진을 우리는 다들 알고 있다.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말이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담배락에 비스듬히 서 있는 그 남자의 모습이 인상적인 건 '구직(求職)'이라고 쓰인 팻말을 목에 걸고 있어서다. 슬픈 그 남자 뒤로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나누는, 양복을 입은 두 남자의 모습은 대조감을 주며 묘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이 한장의 사진은 6·25후 참담했던 당시 서민들의 모습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어 전후 시대상을 소개할 때 빠짐없이 등장한다. 작품 '구인'은 사진 한장이 그 어떤 긴 글과 설명보다 더 명료하게 시대를 증언한다는 사실을 적확하게 보여준다.

이 사진을 찍은 이는 한국 근대 사진의 선각자, 리얼리즘 사진의 선구자로 불리는 고(故) 임응식(1912-2001) 작가다.

임응식 작가의 리얼리즘 사진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 동명동에 위치한 사진·공예 전문 전시장 갤러리 혜음(광주시장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국인이란...

동로 1-6)에서 오는 11월 15일까지 열리는 '임응식 사진전-부산에서 서울로'다. 서울 SPACE 22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대구를 거쳐 광주에서 관람객들을 만난다.

순회전에서는 그가 부산에서 활동하던 시기인 1946년부터 서울에 정착한 1960년 이전까지의 전후 한국의 모습을 담담하게 담아낸 작품 52점이 전시된다. 또 전시에 맞춰 출판한 사진집 '부산에서 서울로'도 함께 만나볼 수 있어 임응식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그의 사진은 당시 시대상을 고스란히 포착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후에 찍힌 사진들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의 앵글이 포착한 작품들엔 유머와 해학도 숨어 있다. 또 작품의 배경은 서울과 부산이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국인이란, 또 그 시절을 책임이나 자료로 접했던 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 감정이 담겨 있다. 짧은 세대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일 것 같다.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은 아직 근대의 흔적이 남아 있던 시절이다. 1960년 작 '비오는 거리 동대문'을 보면 시대의 공존을 느낄 수 있다. 도포 자락에 안경을 쓰고 갓을 쓴 두 남자의 모습과 양복 차림의 두 남자, 그리고 우체통이 어우러져 시대가 뒤죽박죽된 느낌을 줘 흥미롭다.

1953년 서울에서 촬영된 '교통사고'는 보고 있으면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도로에 놓인 고무신 한짝에 분필로 '우측'이라 표시 하는 경찰관의 모습, 그 모습을 호기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재미있다. 동생을 등에 업은 또 다른 '아이', 강인한 생활력이 묻어나는 복잡한 시장 풍경, 멋쟁이 여성과 남성을 만나는 명동 풍경 등도 눈에 띈다. 또 4·19현장 사진과 국군이 서울 수복 후 지주한 사진 등도 만날 수 있다.

전시 관람을 마무리한 후에는 바로로 난 창가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임응식 작가의 사진집을 찬찬히 살펴봐도 좋다.

임응식은 한국사진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활동해온 사진가였고, 그의 활동 자체가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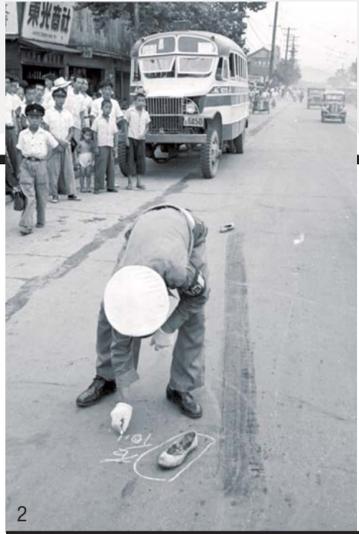
사진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부산 출신인 그는 중학교 입학 선물로 카메라를 받으며 사진에 눈을 떴다. 1931년 부산제신리원양성소를 수료한 뒤 일본인 중심 사진동호회에 가입해 향토적 서정을 담은 일본풍 살롱 사진에 젖어 있던 그는 한국전쟁 당시 종군사진가로서 참전하며 다큐멘터리 사진의 세계로 돌아왔다.

그에게는 사진에 관한 '최초' 타이틀이 많다. 1952년 한국사진작가협회를 창립한 그는 이듬해 국내 사진가로는 처음으로 서울대 미대에서 사진 강좌를 맡았고 이후 중앙대 사진과 교수를 역임했다. 1969년 '공간' 지 편집주간으로 취임해 김환기, 오상순 등 문화예술인들의 초상사진을 촬영, 사진집 '풍모(風貌)'를 출간하기도 했다. 또 그는 198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연 최초의 사진작가이며 2012년 덕수궁분관에서는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 열리기도 했다.

월요일 휴관, 화·금요일 오전 11시~오후 6시, 토·일요일 오후 1시~7시. 문의 0507-1305-696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950년대 후반~60년대 초반 흔적들 시대상 포착한 대표작 '구직' 등52점 전시 한국전쟁 종군기자·다큐 작가로 활동

- 1 구직, 명동 미도파 앞, 서울 (1953)
  - 2 교통사고, 서울 (1955)
  - 3 봄치녀, 부산 (1950)
  - 4 비오는 거리 동대문, 서울 (1960)
- <임응식 아카이브 제공>



'무등미술대전' 공모전

9개 분야, 11월 2일 접수·6일 발표

무등미술대전이 전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한다.

(새광주·전남발전협의회(회장 박재순)는 참신하고 역량 있는 화가를 발굴하기 위한 '제36회 무등미술대전' 작품 전국 공모를 실시한다. 행사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후원한다.

올해 무등미술대전 공모는 한국화를 비롯해 문인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조각, 공예(금속·도자·목칠·섬유 및 기타), 서예(한글·한문·현대서예·전각), 사진 등 9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출품자격은 순수 창작예술 및 국내외 미발표 작품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단, 합동작품은 불가하고 1인 작품만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다음달 2일 하루만 가능하다. 심사는 다음달 5일 진행되며, 수상작 발표는 같은달 6일 광주·전남발전협의회 다음 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gjpower)를 통해 이뤄진다.

시상식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열리며, 수상 작품에 한해 이날부터 23일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전시를 개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집과 삶에 대한 '왜곡된 기억'

한국화가 최나래 개인전, 11월 8일까지 드영미술관

캔버스에 등장하는 '집'은 위태롭다. 거친 풍랑에 흔들리며 떠 있는 여러 채의 집은 '휴식'이라는 기존 인식에 반(反)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한국화가 최나래 작가 개인전이 오는 11월 8일까지 드영미술관에서 열린다. '왜곡된 기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개개인의 기억이 축적된 '집'이라는 매개를 통해 삶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표현한다.

작가는 매일 매일 살아내는 일상으로부터 생기는 다양한 감정들을 작품에 표현하기 위해 '집'과 '삶'을 연결한다. 반복되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집은 우리에게 가장 이

상적인 공간이지만, 화폭에서는 실재하지 않는 왜곡된 공간으로 그려지고 이는 상상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작가는 상상을 통해 다양한 기억을 왜곡시키며 이를 통해 괴로워하기도, 기뻐하기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집'을 통해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다. 붉은 기운의 화사한 색감은 작품에 파스칼도 불어넣는다.

최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 전공 및 동대학원 석사를 수료했다.

이번 전시는 올 초 열렸던 '살-잔몽' 전에 이은 다섯번째 전시회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왜곡된 기억'

예술동아리 지원사업... '쉽, 예술로 답다'

광주문화재단, 30일까지 유튜브 공개...인재진·윤광준 강의

온라인을 매개로 문화 교류와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온택트 축제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30일까지 오후 4시 '2020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 하나로 '쉽, 예술로 답다'를 광주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예체험 '예술 짓는 손', 무대메이크업 강의 '무대 뒤의 비밀', 연극 현장을 담은 '리얼 연극다큐', 음악동아리의 콜라보 공연 '온택트 콜라보 : 행복해요', '아트, 셀 워 토크' 등 총 5개다.

먼저 '예술 짓는 손'은 체험 키트를 집으로 배송하며 체험 후 소감은 광주예술동아리 카페를 통해 다른 회원들에게 공유한다. '무대

뒤의 비밀'은 무대 조명을 잘 받을 수 있는 무대메이크업 방법을 알려주며 '리얼 연극다큐'는 최진영 배우의 '우리집 이야기' 연극 제작과정을 다뤄 형태로 소개한다.

'온택트 콜라보 : 행복해요'는 12개 팀의 콜라보 공연 형태로 영상 및 음원 제작을 공개한다. 대금, 해금, 기타, 하모니카 등 다양한 악기와 보컬, 합창 동아리 등이 참여한다.

문화예술인의 강의와 토크를 듣는 콘서트도 마련됐다. 29일 인재진(지라섬재즈페스티벌 총감독), 30일 윤광준(사진작가)의 토크가 펼쳐진다. 문의 062-670-5771.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술동아리 '광주천사계'의 공연 장면.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